

위메프, '소확행' 복지... 즐거운 회사 생활 돕는다

2018년을 관통한 트렌드 '소확행'(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)은 2019년에도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.

이커머스 기업 위메프는 카페테리아, 사내동아리, 펀데이 등 회사 생활 곳곳에 직원들의 소확행을 위한 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.

삼성동 위메프 본사 1층에 있는 'W카페'는 동료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업체와의 미팅 장소로 활용한다.

커피, 과일 주스 등 다양한 음료와 핫도그, 샌드위치 같은 간식류도 준비돼 있고 위메프 직원은 모든 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.

작년 2월에는 '위메프 카페테리아'라는 직원식당을 열었다.

아침 식사는 1천원, 점심과 저녁 식사는 2천500원이며 연장 근무하면 무료다.

카페테리아가 생기기 전 외부에서 한 끼에 최소 7천~8천원이 들던

식대 부담이 대폭 줄어서 직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.

풋살, 볼링, 실내 게임 등 회사로부터 매달 지원금을 받는 10여 개의 사내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.

또 매달 부서별로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아 강연을 듣거나 영화, 공연을 관람하는 '펀데이'(Fun day)를 갖는다.

위메프 관계자는 "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는 만큼 직장에서의 삶이 개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"며 "직장 생활 속 작은 행복이 위메프 직원들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 ♡

